

## Underwriting Survey의 重要性과 推進方向

近來, 國內의 損害保險會社들은 過去の 募集爲主의 保險經營, 不合理한 付保物件의 危險管理制度에서 脫皮하고 外國保險會社의 國內進出等에 對備하기 위하여 科學的인 經營體制로의 改善에 關心을 기울여 오고 있었으며, 지난해 4월 財務部長官의 指示에 따라 이러한 方向은 具體的으로 本格化되기 시작하였다. 그 指示의 要旨은 危險選別의 基準導入, 適正保有額의 算定을 통한 國內保有의 極大化 및 合理的인 危險分散으로 保險經營을 改善한다는 內容으로서, 이에 따라 各 損保社들은 지금까지의 經營體制를 一新하고 國內保有의 增大를 꾀하기 위하여 構內單位의 保有에서 危險單位의 保有로 轉換하고 危險區分을 3個群에서 5個群으로 細分化하며 消火設備, 棟數, 危險品等에 따라서 增, 減額保有하도록 하여 保有의 硬直性を 緩和하는 것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一連의 措置를 취한 保有規程으로 改正하고 大型物件에 대하여는 實査를 통하여 危險度を 決定하도록 함으로써 危險分析의 合理化를 圖謀하고자 하는 것 등 이었다. 그러나 各 損保社는 充分한 技術陣을 確保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으로서 아직은 大型物件에 대한 實査를 當協會에 依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危險度調査에 의한 付保物件管理가 損保社의 經營改善과 直結되고 또한 外國의 保險技術人은 Underwriting을 위한 Survey가 主業務인 點等を 勘案할때 點檢業務에 經驗이 豊富한 많은 技術職員을 確保하고 있는 協會로서는 이에 대하여 主導的인 役割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點檢方式을 改善하여 安全點檢에서 蓄積된 技術을 付保物件의 危險度測定에 活用함으로써 保險業務와 더욱 密着시켜 나가야 함은 必然的인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當協會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Underwriting Survey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大單位工場에 대한 Underwriting Survey의 施行을 對備하여 方案을 研究 檢討하여 왔으며 그 施行案을 制定, 몇몇 工場에 대해서는 試驗適用을 實施한 바 있고 또한 今番 元受社의 要請에 의하여 高額付保物件의 危險調査를 特別安全點檢과 並行하여 實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分明히 하여야 할 것은 이번이 實施中에 있는 危險調査의 경우는 損保社의 要請事項과 協會의 人力을 勘案하여 簡略化한 것으로서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Underwriting Survey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業務의 遂行을 위해서는 危險區分(single risk)의 適正基準設定, 여러 危險의 危險度判斷 未熟, 調査者의 保險業務에 대한 知識不足等 解決하여야 할 많은 問題點이 남아 있으며, 이의 解決을 위하여는 이 分野에 대한 情報나 資料의 不足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點檢技術과 防災知識을 動員하고 今番 危險調査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未備點을 補完함으로써 더욱 發展시켜 國內 뿐만 아니라 國外의 保險會社에까지도 認定 받을 수 있는 Survey가 될 수 있도록 體系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技術職員 모두가 이 業務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開拓해 나가야 할 것이다.